



목소리를 연주하는 음악가

## 전송이

상당히 많은 경우, 보컬 재즈는 인스트루멘탈 재즈와 분리되어 이야기되었다. 재즈가 즉흥성에 기반을 둔 음악이라 말하지만 보컬 재즈에서 즉흥성을 기대하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벤트성으로 등장하는 스캣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때로 보컬 재즈에서 연주는 보컬리스트를 뒷받침하는 '세션' 정도로 치부되기도 하며 보컬 재즈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전송이는 악기로서 보컬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음악가다. 그녀의 음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녀가 스스로를 칭하는 '보이스 인스트루멘탈리스트'(목소리 연주자)라는 말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그녀는 기타리스트 비니시우스 고메스와 함께한 앨범 [Home]을 발표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보컬-기타 듀오 앨범과 비슷하기도 하면서, 사뭇 다른 앨범이다. 전송이를 만나 그녀의 음악관과 이 앨범에 관한 이야기를 물었다.

인터뷰 류희성

사진 제공 플러스히치

**프로필을 보니까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 클래식 작곡과였다고요. 원래 클래식을 공부했던 건가요.**

네, 시작은 클래식 작곡이었어요. 그렇게 입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당시에 제 선생님이 오스트리아에서 전공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이왕 서양 음악을 하는 거면 서양에 가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오스트리아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스위스 바젤음대 재즈 보컬 학사를 했고요. 보컬 재즈 공부를 위해 학사를 다시 한 건가요.**

그렇죠. 노래는 교회에서 처음 불렀어요.

**클래식 작곡과 보컬 재즈에는 다소간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떤 계기로 재즈를 하게 된 거예요.**

작곡이 재밌기는 한데, 제가 그만큼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가서 그런지 삶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의 애정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노래였어요.

**유학까지 했는데 전향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잘 쌓은 토대 위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방향을 조금 틀어서 노래로 가보자고 했어요.

**영감을 준 재즈 보컬리스트가 있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음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게 팝도 아니고, 가요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있는 전공을 찾아 보니까 보컬 재즈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런 음악도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보컬리스트들을 접하게 됐어요.

**이후에는 버클리음대에서 유학했고요. 현재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건가요.**

스위스의 바젤에서 지내고 있어요.

**스위스에는 좋은 재즈 연주자들이 있고, 몽트뢰재즈페스티벌 같은 유명한 페스티벌이나 클럽도 있어요. 연주자로서 느끼는 스위스의 재즈 씬은 어떤가요.**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재즈 음악가는 손에 꼽히죠. 제가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서로를 끌어주고 도와주는 게 많은 씬인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보면 전자음악을 접목한 재즈나, 자유즉흥연주가 많아요. 클래식과 연계를 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고립된 씬을 구축하고 있어요. 스위스와는 다른 케이스일까요.**

우리나라에선 서로를 끌어줄 수밖에 없죠. 스위스의 경우에는 다른 유럽 국가로 나갈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스위스의 씬 안에서 충분히 음악 활동으로 생활할 수 있고, 충분히 즐겁거든요. 국가지원도 많이 있어서 연주자로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 사랑의 마음을 담은 앨범 [Home]

**〈올뮤직〉을 비롯해 여러 매체에서 [Home]을 2022년의 재즈 앨범 중 하나로 꼽고 있어요. 감회가 궁금합니다.**

저도 좀 신기하기는 해요. 확실히 레이블(그린리프 뮤직)에서 앨범을 내니까, 조금 더 많은 데에 앨범을 보내서 리뷰를 받기도 하고요. 레이블 이름 때문에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앨범을 발표한 그린리프 뮤직은 트럼페터 데이브 더글라스의 레이블이잖아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된 건가요.**

이번 앨범 전에 데이브 더글라스도 저희 음악을 들긴 했대요. 음악을 여기저기에 많이 뿌렸었거든요. 사실, 이번 앨범 녹음은 2020년에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 딱히 할 게 없었어요. 피드백도 없었고요. 그런데 같이 앨범을 만든 친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두텁거든요. 여러 음악가에게 보냈고, 발품도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게 잘 돼서 그린리프와 연계된 외주 프로모션팀에게 전달이 됐대요. 그게 데이브 더글라스에게 전달이 됐고, 마침 데이브 더글라스도 제 음악을 알고 있었던 터라 이야기가 잘 됐어요.

**함께한 기타리스트 비니시우스 고메스는 어떤 연주자이고, 어떤 계기로 듀오를 하게 된 건가요.**

브라질 출신의 기타리스트예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기악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보컬리스트와 함께 따뜻한 음색의 연주도 들려줘요.



**맞아요. 비니시우스 고메스의 다른 연주들을 찾아보니 대단히 테크니컬한 부분이 도드라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승이 싸도 마찬가지로 한데요. 그런데 이번 앨범에선 그렇게 돌출되는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떠한 분위기라든지 텍스처적인 요소가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와는 바젤의 포커스이어 프로그램에서 만났어요. 1년짜리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이에요. 미국의 허비 행콕 인스티튜트를 모델로 해서 만든, 레시던시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에서 1년 동안 함께하면서 서로의 색깔과 역량을 파악했죠. 저희는 서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걸 이미 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업을 할 때 비니시우스의 고모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암 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런 시간에 쓴 곡들이 있어요. 물론, 테크니적인 곡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결국 만들고 싶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했어요.

**편성으로 봐도 이전 앨범들에 비해 대폭 간소화되었죠.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나요.**

아무래도 각자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죠. 사실, 비니시우스가 솔로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아요. 다른 화성 악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베이스나 드럼 반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리듬이 탄탄해야 하고, 기본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A Timeless Place’는 재즈 팬들이 좋아하는 ‘The Peacocks’에 노마 윈스턴이 가사를 붙인 곡, ‘Prism’은 키스 재럿의 곡이고, 이런 몇몇 기성곡에 두 분의 자작곡도 있어요. 특별히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The Peacocks’가 그래요. 사실, 보컬곡으론 그리 인기가 있진 않았는데 재즈미어 혼이 부른 후로 많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포커스이어 오디션을 볼 때 불렀던 곡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게 비니시우스도 그 곡을 선택해서 오디션을 봤대요.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는 시작이 된 곡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브라질의 쇼로곡인 ‘Nilopolitano’ 같은 경우에는 재즈의 ‘Donna Lee’에 맞먹는 곡이에요. 비니시우스가 이런 곡이 있다고



들려줬는데, 승부욕이 발동해서 듣고서 몇 시간 만에 곡을 따서 바로 붙렸거든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계속 머리에 남았어요. 원곡도 찾아서 들어보고, 다른 연주자의 버전도 들어보고, 다른 브라질의 곡들도 찾아보고 했어요.

**꽤 많은 보컬 재즈곡의 경우에 악기는 보컬의 반주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보컬도 하나의 악기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보컬리스트보다는 ‘보이스 인스트루멘탈리스트’(목소리 연주자)라고 봐요. 제가 써온 곡들도 모든 악기가 평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책임을 갖고 하는 걸로 썼어요. 그렇게 밴드를 이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컬이 가지고 있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가사가 없더라도 노래는 사람의 이목을 끌거든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인정하죠. 가령, 다이앤 리브스를 보면 보컬리스트의 파워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해요.

보컬리스트로서 앞에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하는 걸 더 선호해요. 보컬리스트가 앞으로 나가야 할 때도 물론 있죠. 하지만 그건 보컬리스트라서라기보다는 이 악기(보컬)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에요. 이번 앨범에는 가사가 있는 노래를 하기도 했고, 서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했지만, 모두가

동등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하모니를 좋아해요.

**실제로 이 앨범에는 노랫말이 아닌 소리로써 보컬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음악을 좋아해요. 뒤에서 받쳐주는 소리를 함께 내면 관객들이 더 잘 들어줄 거라고 믿어요. 서포터가 아닌 다 함께하는, 그런 힘을 빌리는 거죠.

**이지혜 트리오, 김정식 등 여러 국내 음악가의 앨범에도 참여를 했어요. 사실,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했죠. 한국의 음악가와 함께한 프로젝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나는 게 있나요.**

다 너무 좋아요. 사실, 즉흥 앨범이 하나 더 나올 예정이에요. 드러머 석다면 씨와 함께한 앨범이었어요. 공간감을 주는 음악이라서 제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고 그런 순간에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했어요.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 서로에게 주는 에너지와 영감, 소리가 매우 좋았던 연주였어요.



**다이앤 리브스와 무언가를 한다고 얼핏 들었어요.**

를렉스에서 하는 '멘토 앤 프로테제'(멘토와 제자) 프로그램이에요. 두 사람을 연결해줘서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배우고, 끌어주고,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과거에는 자키르 후세인과 마커스 길모어가 매칭되기도 했어요. 이걸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이에요. 더 많은 걸 경험한 사람에게 보고 배우는 거죠.

**어떤 것이 느껴지던가요.**

다이앤 리브스가 무대에서 밴드를 리딩하는 방식, 큰 무대에서 관객과 하나되는 능력은 제가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음악을 하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거든요. 다이앤 리브스가 수백 명과 함께 그 순간을 만들어가는 힘은 정말 대단했어요.

다이앤 리브스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하나 모든 걸 다 체크해요. 사실, 밴드 멤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이앤 리브스 앞에서는 꺾소리를 못해요. 다이앤 리브스는 듣는 귀도 어마어마하고, 리허설을 하면서도 그 소리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경험한 거다 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과는 정말 달랐어요.

**이제 본격적인 활동이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제 앨범을 냈잖아요. 일단 6월 말에서 7월 초에 유럽에서 투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 투어도 할 예정이기는 한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제 개인 앨범도 낼 생각이예요. 그리고 이지혜 트리오와 함께 독일과 유럽에서 2월부터 투어를 할 계획도 있어요. 좋은 연주 활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JAZZ**

**류희성 \_ 월간 재즈피플 기자**

<블랙 스타 38>와 <합합 명반 가이드북>(공저)을 썼고, <Nobody Else But Me - A Portrait Of Stan Getz>와 <블루노트 - 타협하지 않는 음악>을 번역했다.

“끊임없는 흐름으로  
내면의 성숙함에 다가간다”



MI JUNG LIM  
FLOW

피아니스트 임미정의  
다섯번째 정규앨범

**FLOW**



QR코드를 따라가시면 음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나이트 음악상점  
www.sonaem.co.kr/product/flow

서울 윈터 재즈 페스티벌 2022  
**임미정 FLOW 공연**  
Piano 임미정 Bass 김대호 Drums 김중국

2023.2.7(화) 8PM  
폼텍웍스홀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3길 34, 스페이스맘빌딩 1층)

문의: 플러스하치  
02-941-1150  
예매: 네이버예약, 인터파크, 티켓링크